

VD SPECIAL

벤처 윤리역량 강화

글 _ 홍길표(천안대 경상학부 교수)

기업의 윤리경영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제2의 도약기를 맞은 벤처기업은 윤리역량 강화 부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리경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벤처기업이 지향해야 할 모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투명한 벤처생태계 조성, 윤리경영이 해답이다

윤 리 경 영 의 필 요 성 대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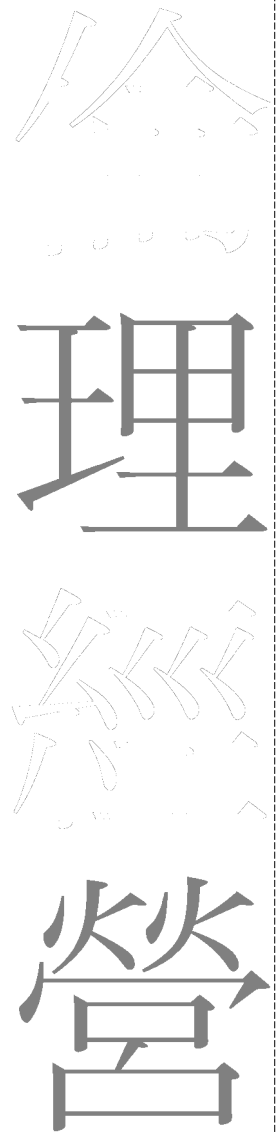
최근 들어 윤리경영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엔론이나 월드컴 등 미국 대기업들의 잇따른 회계부정사건과 그에 따라 기업청산, 국내의 경우에는 김우중 회장의 귀국과 함께 다시 불거진 대우그룹 사태 등으로 인해 윤리경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 반부패를 위한 투명사회협약, 국제적으로는 윤리경영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국제 표준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윤리경영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제인증제도로 정착된다면 마치 품질경영 규격인 ISO 8000이나 환경경영 규격인 ISO 14000과 같이 좋은 싫든 그 표준안을 준수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해질 것이다.

윤리경영은 대기업은 물론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도 점차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 벤처기업은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이 가시화된 1990년대 중반이후 IMF 위기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발전했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나타난 벤처 창업열기와 투자 붐은 1999년 절정을 이루며 한반도를 강타했다.

그러나 뒤이은 코스닥시장의 급락과 장기침체의 과정을 거치면서 벤처버리나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겼다. 벤처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와 경제자원의 비정상적 배분구조는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고, 정보가 부족한 일반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결국 벤처생태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수준을 끌어 올려 벤처생태계의 정상적 발전을 기하기 위해 하루 빨리 윤리경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성장초기부터 국내시장의 규모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윤리경영 강화 움직임에 발맞추어 기업의 윤리경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윤리경영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원칙

윤리경영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도덕성(morality)은 자신의 행위나 동기, 목표 등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적 규범이나 직업윤리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실적으로 도덕성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업이나 임직원들의 탈법적·비도덕적 행동을 어느 정도나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

다음 원칙인 공정성(fairness)은 행위자가 받게 되는 보상을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이나 절차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절차공정성, 그리고 행위자의 조직에 대한 기여 대비 보상의 적절성을 보여주는 분배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상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 및 이익을 기업경영의 과정 및 결과배분 측면에서 공정하게 보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투명성(transparency)은 정보의 원천에서 정보가 창출되어지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기록되고 또한 공시되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적시성과 일관성, 신뢰성, 접근가능성, 이해가능성 등을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상 기업경영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어느 정도나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해 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을 높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준이다. 이러한 윤리경영의 기본 원칙을 기업경영의 상위 이념으로 확립해 나가고,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경영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실제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윤리의 제도화를 통한 신뢰 회복

벤처기업의 윤리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윤리경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윤리의 제도화란 기업의 일상적인 생활에 공식적이고 명료하게 윤리를 결합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또 윤리가 기업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윤리를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구조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윤리의 제도화'이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실천방안으로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제도적 실천방안과 협회 등 기업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제도적 실천방안이 있다. 관리적 실천방안으로는 윤리적 조직화 방안, 기업윤리 교육방안, 이해관계자 관리방안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적 실천방안으로는 CEO의 윤리적 리더십과 기업철학, 윤리적 조직풍토 조성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실천방안이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자원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사람을 통한 윤리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초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CEO가 윤리적 리더십과 기업철학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또한 이러한 윤리경영의 의지와 이념을 구성원들에게 확산시키고 실제적인 활동규범으로 확립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벤처기업들의 윤리경영 강화 노력은 결국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경영시스템의 합리화를 촉진해 기업경쟁력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며, 더 나아가 벤처생태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벤처기업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